

독일 성인진입기 소설 개념에 관한 시론*

허 영 재 (부산대)

I. 서 론

지난 세기 말 독일문단은 당시 급변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단시간 내에 “대격변”을 경험하였다.¹⁾ 이 변화 가운데 전후 1세대 문인의 “손자”²⁾라 불리는 3세대에 속한 신예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새로운 주제와 글 쓰기 방식으로 독일문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팝 소설, 성인진입기 소설³⁾과 같은 소설 장르들이 새롭게 활성화되고, 젊은 작가들의 자서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주제들은 젊은 독자들의 호응을 강하게 불러일으켰다. 특히 젊은이(성인진입을 앞 둔 청소년)가 겪는 갈등과 혼란, ‘고독, 소외, 성애, 팝음악, 약물탐닉’으로 점철되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여피적 삶, 정체성 찾기와 그 과정에서의 방황, 그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이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처럼 20대 전후의 성인진입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의 쇄도는 1980년 이후 지금까지 독일문단의 하나의 새로운 현상으로 진단되었다. 힐셔 Hielscher는 이에 대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의해야하는 디스토피아적 역사 상황 속에서 성인진입 직전의 청소년이 문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소재가 되었다”⁴⁾고 이야기하였다. 독일문에

* 이 논문은 2011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1) “Man muss mehr geben als Wörter.” Interview mit Matthias Politycki von Dirk Knipphals. In: Die Tageszeitung, 22.2.2000, S. 14. Hier zitiert nach M. Baßler, in: M. Baßler 2002, S. 9.
- 2) “Die Enkel kommen”. Volker Hage. In: Der Spiegel, 11.10.1999, S. 245.
- 3) Adoleszenzroman을 이렇게 번역하였다.
- 4) Martin Hielscher 2001, S. 68.

학은 이즈음 새로운 소설 장르인 ‘Adoleszenzroman’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영미문학의 ‘adolescent novel’을 차용한 이 개념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80년대의 일이다.⁵⁾ 독일어 ‘Adoleszenz’가 사전적으로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의미하는 만큼, ‘Adoleszenzroman’은 일차적으로 ‘청소년소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Adoleszenz’의 의미와 성격이 현대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변화하면서, 단순히 과거의 ‘청소년’이란 번역으로 변화된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장르에 대한 의미 또한 새롭게 확충되거나 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장르를 가리키는 말로 ‘Jugendroman’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장르 개념이 전통적인 청소년소설을 의미하는 ‘Jugendroman’과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혼용할 수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전자의 경우가 다른 특별한 뉘앙스를 가지고서 사용되는 개념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1980년 이후 최근까지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소설 형식인 ‘Adoleszenzroman’의 개념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개념의 타당한 우리말 번역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장르의 개념을 정의함에 앞서 무엇보다 ‘Adoleszenz’의 개념 역시 정리해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소설 장르의 형성에 현대와 포스트모던 사회의 ‘Adoleszenz’의 특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새로운 장르와 유사 장르와의 비교를 통해 전자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해보려 한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개념 정의를 시도하려는 데는 무엇보다 이 장르의 개념이 아직도 유통적이며 다른 장르와의 경계 또한 불명료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비교를 통해 드러난 차이의 종합을 통해 새로운 장르의 개념을 구성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장르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의 이미 인정된 장르와 비교하는 것은 문예학에서 드물지 않게 시도되는 방식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학의 장르라 함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식과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차이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5) Carsten Gansel 2008, S. 360.

수업시대 Wilhelm Meisters Lehrjahr』, 레게너의 『레만 씨 이야기 Herr Lehmann』, 슈투라트-바레의 『솔로앨범 Soloalbum』, 크라흐트의 『파저란트 Faserland』가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 작품들은 각각 교양소설, 성인 진입기 소설, 팝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II. ‘Adoleszenz’와 ‘Adoleszenzroman’

II.1. ‘Adoleszenz’의 개념

‘Adoleszenz’⁶⁾란 개념이 사용된 것은 독일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단어는 독일의 두텐 Duden 사전에 1990년에 비로소 표제어로 등장한다. 여기서 ‘Adoleszenz’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의 마지막 단계: 여자 아이는 [...] 15세, 남자 아이는 17세가 되면 ‘Adoleszenz’ 단계에 접어든다”(Duden 1999, S. 136)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텐 외래어사전 Duden Fremdwörterbuch에서는 “청소년기, 성숙기를 의미. 특히 사춘기가 종료된 이후의 단계”(Duden 2000, S. 45)라고 설명하고 있다.⁷⁾ 연구자들은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근대의 일이라 주장한다. 그 근거로 영어 단어 ‘adolescence’가 15세기 이전에는 확인이 되지 않으며, 독일어권에서는 1940년까지는 해당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⁸⁾

이처럼 근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Adoleszenz’ 개념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반의 청소년 발달심리학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초반 빌러 Charlotte Bühler의 논문 『청소년의 정신생활 Das Seelenleben des Jugendlichen』(1921)은

6) 여기서 ‘Adoleszenz’는 사전적으로 ‘17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엡텐스 독한사전, 2007)을 의미하므로, 청소년으로 표기하면 되겠으나, 청소년을 나타내는 단어인 ‘Jugend’와 구분하기 위해 원어로 표기하였다.

7) Vgl. Annette Wagner 2007, S. 24.

8) Ebenda.

이후 이 개념을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끼쳤다.⁹⁾ 이후 1960대와 70년대에 접어들어 프레제 Peter Freese, 헬러 Arno Heller, 에르트하임 Mario Erdheim, 지네커 Jürgen Zinnecker, 헬스퍼 Werner Helsper, 킹 Vera King 등의 연구가 ‘Adoleszenz’ 개념 논의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¹⁰⁾

무엇보다 블로스 Peter Blos의 정신분석학 연구서 『성인진입기청소년 Adoleszenz』(1962/2001)는 동 개념 연구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사춘기 Pubertät’와 ‘Adoleszenz’를 구분하면서, 전자가 “성적 성숙의 신체적 징후”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성적 성숙 상태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였다. 그래서 사춘기는 생물학적 사건으로 “자연의 산물”인 반면, 후자는 정신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것으로 “인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¹¹⁾ 발달심리학자인 에릭슨 Erik Erikson은 이 개념과 관련하여 일종의 ‘심리사회적 유예 psychosoziales Moratorium’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유년과 성인 사이의 과도기에 나타나는 성인 진입을 유예하려는 정신적 상태, 즉 성인되기를 미루려는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의미한다 하였다.¹²⁾ 킹은 이 개념을 사회의 현대화 정도와 결부시켰다. 이 교육학자는 현대사회의 젊은이의 본질적 특징을 “상대적 불확실성”에서 찾았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소속된 연령층, 세부맥락, 배경, 전개양상” 등에도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았다.¹³⁾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Adoleszenz’를 사전적 정의와 달리 어떤 특정 연령에 한정할 수 없는 개념이 되었다. 전통사회 및 사회의 현대화 초기 단계에서는 ‘청(소)년’¹⁴⁾ 단계가 명확하게 그 경계가 나타났던 것에 반해, 사회 현대화가 진행되

9) Carsten Gasel 2008, S. 360.

10) Vgl. ebenda.

11) Peter Blos: Adoleszenz. 1962. Hier zitiert nach Carsten Gansel 2010, S. 166f.

12) Vgl. Carsten Gansel 2008, S. 360.

13) Vera King 2002. Hier zitiert nach Carsten Gansel 2008, S. 360.

14) 여기서 ‘Adoleszenz’ 개념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독일어 ‘Jugend’와의 구분과 우리말 번역이 문제가 된다. 독일어 ‘Jugend’는 우리말로로는 광의로 ‘청소년’을 그리고 협의로 ‘청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유년기의 끝에서 완전한 성인이 되기 이전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 인간 발달 단계로 보면 우리말 ‘청소년’과 ‘청년’ 시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말의 경우 ‘청소년’과 ‘청년’은 상당한 개념상의 편차를 보인다. 전자가 ‘유년’에 가깝다면 후자는 오히려 ‘성인’에 가까운 개념이

면서 청(소)년은 그 분명한 윤곽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젊은 이들은 전통사회에서와는 달리 성인이 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 다양한 선택의 길과 시험의 시기를 거치고, 더 많은 유희공간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된다.¹⁵⁾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대 청소년은 성인으로의 진입이 지연되고, 성인과의 경계가 모호한 시기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¹⁶⁾ 렘슈미트 Helmut Remschmidt는 ‘Adoleszenz’ 개념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성장 단계 가운데 유년기 끝에서 성인 사이의 과도기를 다루는 여러 학문 분야와 연관시켜 이 개념의 정의를 시도하였다. 그는 의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은 물론 정신분석학적 성장이론이나 경험론적 사회연구, 젠더 및 세대 연구 등의 학제적 고찰을 통해 ‘Adoleszenz’ 개념을 구성하였다.¹⁷⁾ 첫째 생물학적으로 보면 ‘Adoleszenz’는 육체적 성장과 성적 성숙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전체를 포괄한 개념이다. 이는 사춘기 개념과 흡사하다고 하겠다. 둘째 심리학적으로 ‘Adoleszenz’는 이러한 신체 변화에 대한 대응과 극복, 그 변화에 대한 사회적 반응 등과 연결된 모든 개별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젊은이의 ‘자아정체성’, ‘성애’, 사회관계, 희망과 목표, 성인 세계로의 진입과 관련된 전 개별 과정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학적으로 고찰하면 ‘Adoleszenz’는 일종의 중간 단계라 정의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젊은이는 신체적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면서 책임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요구받지만, 결혼이나 직업 활동 그리고 경제적 독립과 같은 핵심적 “지위의 전환”¹⁸⁾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렘슈미트

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독일어 Jugend는 문맥에 따라 우리말로 ‘청소년’ 또는 ‘청년’을 의미할 수 있다. 가령 독일어 ‘Jugendliteratur’로 쓴 경우, 이 단어는 독일에서 통상 출판 또는 도서관의 분류와 연관되어 ‘Kinder- und Jugendliteratur’로 함께 묶여 사용되면서, 우리말로 ‘아동 및 청소년문학’으로 번역된다. 이 경우 ‘Jugend’는 성인 이전의 유년에 가까운 단계를 지칭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Adoleszenz’는 단순히 ‘청소년’으로 번역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청(소)년’으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단어로 ‘젊은이’로 통칭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Vgl. Carsten Gansel 2010, S. 158ff.

15) Vgl. Carsten Gansel 2010, S. 166.

16) Ebenda.

17) Remschmidt, Helmut 1992. Hier zitiert nach Gansel. In: Ebenda.

가 이처럼 ‘Adoleszenz’ 개념의 다층성과 복합성에 주목하였다면, 간젤은 여기에 “문화사적 결정요인”을 추가하였다.¹⁹⁾ 그는 ‘Adoleszenz’의 개념과 의미 성립은 성장 주체가 소속된 사회의 문화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래서 ‘Adoleszenz’는 그 주체가 소속된 역사 시기와 당대의 사회적 성격에 따라 그 전개 양상을 달리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먼저 근대 이전, 현대 그리고 포스트모던 가운데 어느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지가 ‘Adoleszenz’ 국면을 결정적으로 규정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인진입이 개방된 민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폐쇄적인 독재국가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성인진입기의 양상은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이처럼 ‘Adoleszenz’는 사회 민주화와 사회 현대화의 정도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며 그 전개 양상과 고유의 특징에도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주장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Adoleszenz’는 기본적으로 ‘Jugend’처럼 유년기와 성인의 중간 단계, 즉 ‘청소년’ 또는 ‘청소년기’를 의미한다. 사전적으로는 대략 16-20세 사이의 ‘청소년’ 또는 ‘청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와 청소년의 성장유예 또는 성인으로의 진입 지연 현상이 나타난다는 데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 전통사회에 비해 각 개인의 유년기는 더 일찍 끝이 난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적 조숙과 성인체험은 앞당겨진데 반해 완전한 성인으로 진입과 주체의 독립은 전통사회에 비해 오히려 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은 문화적, 정치적, 법률적 그리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경제적 자원과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부모나 국가에 의존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불일치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면서, 아직은 아닌 nicht mehr, aber noch nicht”²⁰⁾ 일종의 성장 중단 또는 성장이 유예된 과도기를 점점 연장시키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과도기인 성장 유예 기간이

18) Hurrelmann, Klaus(Hrsg.) 1999, S. 39.

19) Carsten Gansel, 2008. S. 361.

20) Susanne Messer: “Helden wie wir”. In: Die Tageszeitung, 11./12.8.2001. Hier zitiert nach Carsten Gansel 2003.

길어지자 일부 연구자들은 청소년 단계를 세분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Adoleszenz’는 전통적으로 청소년을 가리키는 ‘Jugend’와 경우에 따라 구별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Adoleszenz’는 일반적 개념으로는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때로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기 직전의 과도기, 유예기, 일시적 정지기를 특정하는 말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우리말로 ‘성인진입기’ 또는 ‘성인진입기 청(소)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인진입은 전통적으로 20대 전후로 일어나던 데 반해 문화적 조건에 따라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30대, 40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청소년의 성인되기가 늦어지면서, 달리 말해 성인진입기가 길어지면서 독일문학 역시 이 시기에 초점을 맞춘 많은 문학 텍스트들이 지난 세기말부터 오늘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즈음에 ‘성인진입기 소설’이란 새로운 개념이 독일문예학에 등장하게 되어, 이러한 성격의 텍스트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러한 성격의 소설의 증가는²²⁾ 2000년 이후 독일문예학에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로 이어졌다.²³⁾

21) 즉 18세까지를 “청소년 단계 Jugendphase”, 21세까지를 “성인진입기 청소년 단계 Adoleszentenphase”, 이어지는 단계는 30대까지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성인진입기 이후 단계 Nach-Jugendphase(Postadoleszenz)”로 구분하였다. Vgl. Annette Wagner 2007, S. 26.

한편 이와 관련 블로그도 ‘Adoleszenz’를 성장의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첫 단계는 Präadoleszenz, 두 번째 단계는 양친과 분리되어 이상적 친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단계 Frühadoleszenz,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Adoleszenz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관찰과 자아 발견, 전지전능함에 대한 환상, 백일몽과 환상, 민감한 감수성으로의 경도가 나타난다. 네 번째 단계는 Spätadoleszenz로 이는 새로운 이상과 가치관이 안정된 자아 정체성과 통합되는 단계이며, 마지막 단계인 Postadoleszenz는 성인으로 되는 “중간 단계”로서, 여기서는 앞선 단계의 통합이 완료되면서 “약혼, 결혼, 부모 역할과 같은 사회 역할의 수행”이 시작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네트는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가 성인진입기 소설의 대상이 되는 시기라 보았다. Vgl. Annette Wagner 2007, S. 28.

22) Vgl. Stefan Born 2011, S. 530.

23) 2004년 『Zeitschrift für Germanistik』이 성인진입기 소설을 학회지 특집으로 낸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2. 성인진입기 소설과 유사 장르와의 비교

전통적으로 독일문학에서 청소년을 소재로 하면서, 성인진입기 소설과 비교되는 장르로는 교양소설, 발전소설, 악동소설, 교육소설, 1970년 이후의 ‘문제지향적 청소년문학’, ‘여성해방을 주제로 한 소녀문학’, ‘청바지문학 *Jeansliteratur*’ 등과 같은 장르들이 존재한다.²⁴⁾ 특히 독일의 성인진입기 소설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미국의 ‘성인입문 소설 *Initiationsroman*’²⁵⁾은 두 장르 사이의 경계 구분이 대단히 모호하다고 할 정도로 유사성을 띤다. 이뿐 아니라 유럽어권 문학에서는 일종의 보조 개념으로 1900년을 전후로 ‘학교소설’ 내지는 ‘사춘기소설’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였다.²⁶⁾ 여기서 학교는 주로 핵심사건 공간으로, ‘억압적 교사’는 청소년의 삶의 위기를 유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가족, 교회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은 자아인식을 시작한 젊은 주인공의 정신적 혼란과 파괴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등장한다.

II.2.1. 교양소설과의 비교

1980년대의 독일 성인진입기 소설은 먼저 그 줄거리 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독일의 전통적인 장르인 교양소설과 비교된다. 특히 작품의 주인공이 성숙된 인격체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겪는 주변세계와의 갈등, 정체성의 혼란, 주체의 완전한 자율성에 대한 요구 등을 다루는 작품의 외적 줄거리는 두 장르에서 공통되게 발견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 불구하고 이들 두 장르는 다음 몇 가지 요소를 통해 분명하게 구분된다.

첫째 멘토의 존재 여부는 두 장르를 구분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교양소설 주인공의 옆에는 반드시 멘토가 존재한다. 주인공의 삶의 순간순간, 인생여정의 길목마다 멘토에 해당하는 인물이 등장하여 주인공의 교양 완성을 돕는다.

24) Vgl. Annette Wagner 2007, S. 40.

25) 이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26) 마이어 C. F. Meyer의 『소년의 번뇌 *Die Leiden eines Knaben*』,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Unterm Rad*』, 릴케의 『체육시간 *Die Turnstunde*』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멘토는 괴테의『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의 신부나 로타리오가 했던 것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주인공을 도와 그를 최종적으로 이성과 교양의 영역으로 인도한다. 때로는 주변과의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로부터 이탈해 나온 주인공에게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행해야 할 의무와 인간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삶의 형태를 학습하게 하여 공동체로의 귀환을 돕는다. 이처럼 교양소설의 멘토의 존재는 주인공이 보다 성숙된 인간으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대와 포스트모던 성인진입기 소설에는 이러한 멘토는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은 오로지 자신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거나, 많은 경우 소통 부재 속에서 끝없이 방황한다. 그의 곁에서 동일하게 방황하는 유사한 수준의 영혼들은 주인공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못한다.

둘째 교양목표 존재나 주인공의 주변세계와 화해 여부는 교양소설과 성인진입기 소설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교양소설의 작가는 성숙의 개념을 믿는다. 따라서 교양소설에서 묘사된 정체성 위기는 비교적 온건하게 전개된다. 교양소설의 주인공은 궁극에 가서는 주변세계와 화해하는 조화로운 상태로 끝이 난다. 주인공은 사회조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거나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와 통합을 이룬다. 이에 반해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성인진입기 소설에서는 낙관주의에 입각한 결말이 나타나지 않는다.²⁷⁾ 인생에 대한 구상을 발전시켜나가는 대신 현대 또는 포스트모던 성인진입기 소설에서는 확실성은 해체되고, 자아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때로 작품의 마지막에는 죽음이 발견된다. 청소년의 고통과 좌절에 대한 묘사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 그 어떤 목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빌헬름이 상인이 되기를 희망하였던 부친에 대해 저항하면서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연극배우로 활동하였지만,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은 ‘탑의 결사’이다. 이를 통해 그는 현실적 생활인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마침내 그는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자신을 깨닫는다.²⁸⁾

27) Annette, a. a. O., S. 42.

28) 오한진 1989, 84-87쪽 참조.

이에 반해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인진입기 소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레만 씨 이야기』의 주인공인 레만은 이러한 사회 책임과 공익적 활동, 휴머니즘적 사랑 실천과 같은 시민사회 가치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으며 자신의 가치와 세계에 매몰되어 있다. 때로 그는 오히려 시민 사회의 규범적 질서와 갈등 양상을 보인다.²⁹⁾ 그는 자신의 부모나 연인과는 달리 계몽주의 이후 산업화된 사회에서 형성된 독일 교양시민의 규범적 질서나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일 뿐이야, 레만 씨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여자’라는 개념이 불편하게 거슬리긴 했다. 이진 좋은 개념이 아니야. ‘단순한 여자’란 것 말이야, 그는 생각했다. 부르주아적 교양시민 따위를 말하는 거야, 레만 씨는 생각했다.”(HL, S. 23f.)

레만 씨가 아들의 직업과 또 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지 못 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단순한 여자’라 표현했을 때는 그녀가 오래된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이다. 그는 곧 이어 이를 ‘부르주아적 교양시민’이라고 고쳐 표현함으로써 그와 어머니의 갈등의 원인이 시민사회의 질서와 전통적 가치를 주장하는 주변 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두 장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서술된 시간이다. 교양소설이나 발전소설에는 서술된 시간이 몇 년 또는 몇 십 년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길게 나타나지만, 이에 반해 성인진입기 소설의 서술된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개는 삶의 한 국면을 묘사하면서 일 년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II.2.2. 교육소설과의 비교

교육소설은 루소의 『에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적 미래 프로그램을 포함

29) 허영재 2013 참조.

한, 교육 목적과 연관된 교육적 장르이다. 이 장르의 중심에는 이성적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 인간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계몽적 믿음이 놓여있다. 이 장르는 순수성과 희망의 원형이자, 외부의 환경에 의해 위협받는 아이에 대한 시선을 성인진입기소설과 공유한다. 하지만 성인진입기 소설에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인진입을 앞 둔 청소년이 중심에 놓여 있다면, 교육소설의 중심에는 멘토 역할을 하는 교육자와 그와 동일한 비중을 가진 피교육생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교육소설은 피교육생의 교육과정과 선택된 교육적 행위의 효과를 항상 긍정적인 결론을 가지고서 그리고 있다.³⁰⁾

II.2.3. 악한소설 내지는 악동소설과의 비교

악한(악동)소설의 주인공은 대부분의 성인진입기소설의 주인공처럼 남성 아웃사이더이다. 그는 영웅적이라든지 덕성과 용감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대신 교활하고 냉소적이고 도덕관념이 없는 악한이다. 그는 기지와 얕은 꾀로, 때로는 거짓과 사기를 저지르면서 그를 밀어낸 사회 속에서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투쟁한다. 그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온갖 사회계층과 직업군의 사람들 속에서 모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독자에게 천하거나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에 관해 풍부한 관찰을 제공해주고, 사회의 위선과 부패에 대해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으로 조롱한다. 악한(또는 악동)은 위에서 조망하는 조감시점 *Vogelperspektive* 대신에 철저하게 아래로부터의 시선으로 동시대인의 상황을 주시한다. 이를 통해 여러 모험이 병렬되는 가운데 풍자적 색채를 띤 “사회전체의 모자이크”가 생겨난다.³¹⁾ 이때 악동은 자신의 내적 체험보다는 외부 사건을 반영하며, 따라서 개인화된 개성적 인물로서보다는 일종의 유형으로 작동한다. 이 점에서 유형화된 인물보다는 철저하게 개인의 삶을 추적하는 성인진입기 소설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독일문학에서는 18세기 교양소설과 발전소설에 의해 밀려났다가, 20세기 들어와 시민적 가치 및

30) Annette Wagner 2007, S. 43.

31) Ebenda.

사회 질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시 적대적 악동의 르네상스가 도래한다. 토마스 만의 『사기꾼 펠릭스 크룰의 고백 Bekenntnisse des Hochstaplers Felix Krull』, 그라스의 『양철북 Die Blechtrommel』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악동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 유형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아동문학에 해당하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Adventure of Huckleberry Finn』이다. 이 작품에서는 소위 말하는 주인공의 ‘악행’, 즉 소년 상태의 지속을 통해 성인세계에 대해 반항한다. 그러나 결국 존경받을 만한 시민이 되기 위해 이러한 악행을 그만 둔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본다면 악동소설은 성인진입기 소설보다는 미국의 성인입문텍스트 Initiationtext에 근접한다고 하겠다.

II.2.4. (성인)입문소설 Initiationsroman과의 비교

이 소설 장르는 이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그 개념이 완성되어, 현대 (그리고 포스트모던) 성인진입기 소설 장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³²⁾ ‘성인입문 Initiation’³³⁾은 인종학, 인류학에서는 ‘성인으로의 성장’을 의미하거나, 일반적으로 특정 ‘단체나 교단으로의 입문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문’은 때로는 새로운 삶의 영역 또는 섹스나 음주와 같은 새로운 경험 영역으로의 진입, 또는 새로운 견해와 인식에 도달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영미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성인입문’은 한 젊은이를 변화된 새로운 사회형식 속으로 입문하게 하는 순간적, 일회적 사건을 의미한다. 하지만 프리세는 이 개념을 확장하여 ‘성인입문’의 과정을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두 삶의

32) 무엇보다 셸러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The Catcher in the Rye』이 성인진입기 소설 장르 형성의 모범이 된 작품이다.

33) 이 단어의 우리 말 번역이 역시 문제가 된다. 간단하게 ‘성인식’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이는 원래 단어가 가진 함축된 의미를 부분적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한 번역어이다. 왜냐하면 성인식이라 함은 ‘성인이 되기 위해 치르는 하나의 의식’을 가리키는데, 이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성인이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 또는 그 이후의 의식의 변화’라는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성인입문’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영역 사이에 놓인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³⁴⁾로 정의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개인화의 과정으로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간적 변화와 발전의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는 존재의 완전한 변화인데, 이 변화는 “과거의 인간이 죽고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것으로 상징 된다”고 프리세는 주장한다.³⁵⁾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그는 ‘성인입문텍스트’를 규정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성인입문텍스트’의 첫 번째 요소는 이 텍스트가 “악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주인공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순진무구한 주인공은 책임, 고독 또는 이상으로 살았던 인물의 상실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인공을 과거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충격적 체험이자, 동시에 주인공의 자기이해로 가는 최초의 단계에 해당한다.³⁶⁾ 성인입문 텍스트의 두 번째 요소는 주인공의 “순진무구의 상실과 성숙의 획득”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³⁷⁾ 여기서 주안점은 악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놓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체험이 가져오는 결과 또는 효과에 놓인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과정이 텍스트의 중심에 놓인다. 세 번째 요소는 ‘성인입문’과 관련한 사회적 측면이다. 성인입문은 앞서 언급한 개인의 심리적 측면 외 성인입문의 사회적 측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성인입문은 주인공이 사회화되는 과정으로, 자아발견, 자기실현으로 가는 여정의 중요한 단계이다. 마지막 요소로는 성인입문의 기간의 문제이다. 프리세는 개인의 성인입문은 인간의 성장 단계에서 어떤 특정 시기 또는 기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성숙의 과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종결되었다는 확실한 하나의 순간을 찾는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한다.³⁸⁾ 그래서 베르크만의 주장처럼 “첫 사랑, 졸업식, 운전면허시험, 최초의 자가 주택, 취직”과 같은 단일 사건들이나 계기가 결정적인 성인입문의 순간으로 간주되는 인생의 정점이 될 수 있

34) Peter Freese 1998, S. 155.

35) Ebenda.

36) Peter Freese 1998, S. 95.

37) Vgl. ebenda S. 97.

38) Peter Freese 1998, S. 135.

다는 것이다.³⁹⁾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인입문은 인생의 특정 시기나 생물학적 나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성인입문’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즉 자아와 그 자아와 마주 서있는 세계 사이의 상호교호의 과정이다. 이때 입문하는 자를 교양소설에서 처럼 한 명 또는 몇 명의 멘토가 옆에서 도울 수 있다. 성인입문은 그 기간과 입문하려는 자의 나이와 관련하여 어떤 제한도 없다. 성인입문은 고통스럽고 환상을 깨치는, 세상의 악을 발견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실존 국면으로 옮겨가기 위한 필요한 전제이다. 성인입문은 성인세계로의 이전과 순진함의 최종적 상실을 나타내며, 따라서 자기발견과 자기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⁴⁰⁾

만약 성인입문의 개념이 이렇다면 ‘Adoleszenz’의 개념과의 구분이 쉽지가 않다. 굳이 시도한다면 전자는 한 젊은이를 성인으로 입문하게 하는 특정 사건이나 계기 또는 그로 인한 인식의 변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Adoleszenz’는 앞서 밝힌 대로 ‘성인진입기’ 또는 ‘성인진입기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로서, 한 인간의 성장 단계의 특정 시기 가운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 젊은이의 특성에 주안점을 둔 개념이라 하겠다.

한편 ‘성인입문’ 개념과 관련된 미국문학의 세부 장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문학에서 ‘성인입문을 다룬 텍스트 Initiationtext’에는 크게 다음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initiation story’이고 다른 하나는 ‘novel of initiation’이다. 전자는 성인입문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을, 후자는 장편소설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두 형식 가운데 전자가 ‘성인입문’을 주제로 다루기에 가장 전형적이지 적합한 형식이라는 주장이다. 즉 ‘성인입문 장편소설 Initiationsroman’이란 개념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장편소설은 장르의 특성상 항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건의 경과 과정을 통해 주인공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성격의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장르인 발전소설, 교양소설, 그리고 ‘성

39) Ina Bergmann 2003, S. 43.(Fußnote). Hier zitiert nach Nicole Gast 2007, S. 20.

40) Vgl. Nicole Gast 2007, S. 20.

인진입기 소설'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성인입문은 기본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나 계기, 또는 성장 과정에서의 하나의 정점을 나타내는 사건을 의미하는 만큼, 장편소설보다는 압축된 줄거리 구조를 가진 단편소설이나 독일의 '극단편(極短篇) Kurzgeschichte'이 성인입문을 다루기에 더 알맞은 장르이다.⁴¹⁾ 이렇게 성인입문 텍스트를 단편소설에 국한해서 본다면 이는 분명히 성인진입기 소설과는 그 기본적 형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할 것이다.

성인입문 텍스트 역시 교양소설처럼 주인공의 정체성발견을 핵심주제로 한다. 하지만 성인입문 텍스트에서의 정체성 발견은 단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숙의 과정이 아니다. 작품은 제한된 시간공간과 약간의 핵심체함에 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인입문은 극히 제한된 순간의 체험을 통해 완성된다. 또한 성인입문 텍스트 속의 “자기실현은 (그를) 형성시키는 힘으로 체험되고 받아들인 사회 속으로 편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사회 규범, 역할, 가치와 대립하거나 아니면 그것들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⁴²⁾ 성인입문 텍스트의 이러한 주제적 측면은 교양소설보다는 현대 성인진입기 소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세는 성인입문 소설을 미국의 ‘성인진입기 소설 novel of adolescence’이라는 더 큰 집단에서 떨어져 나온, 일종의 특별 형태로 보고 있다. 에버스 역시 성인입문 소설 또는 성인입문 텍스트를 삶의 특정 단계에서 겪는 체험에 이야기의 초점이 맞춰지는 현대 (또는 포스트모던) 성인진입기 소설의 하위 장르로 보고 있다.⁴³⁾ 왜냐하면 성인입문 텍스트들이 앞서 언급된 성격의 체험을 통해 국외자였던 주인공이 외면적으로 성숙하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간젤은 현대 성인진입기 소설이 미국의 성인입문 소설의 모범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간젤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의 모험』과 윌리엄 포커너의 『가라 모세 Go Down Moses』를 “성인들의 일방적인 업적요구와 가치 그리고

41) Vgl. Bergmann, S. 14 und Freece 1986, S. 46.

42) Heller 1973, S. 156.

43) Vgl. Nicole Gast 2007, S. 39.

규범에 저항하는” 청소년 주인공의 이야기에 대한 예로 들었다. 이 두 작품에서는 “기성사회의 제도화된 질서에 대한 한 젊은이의 저항”과 그에 따라 “정체성과 행동의 자율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획득”이 주요 주제로 파악된다.⁴⁴⁾ 여기서 성인 세계가 항상 우위를 차지하는데, 이런 세계를 피하기 위해 청소년 주인공은 이 세계에서 하차를 강요받는다라는 것이다. 이것과 유사하게 현대 성인진입기 소설에서도 그 특징 가운데 하나로 문제 극복을 위한 교육적 교훈이나 인도 대신 “종결시킬 수 없는 미해결” 갈등이 등장한다. 특히 성인진입기 소설의 문체상의 핵심 특징인 내부시점⁴⁵⁾ 통해 개인화된 주인공의 대단히 복잡한 정체성 위기를 아주 자세하게 재현한다.⁴⁶⁾ 그래서 성인입문 텍스트에서 주인공이 한 순간의 경험과 계기를 통해 문턱을 넘어 성인 세계로 진입하는 것과 달리, 많은 성인진입기 소설에서는 이러한 진입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II.2.5. 팝 소설과의 비교

1990년대 형성된 팝 소설은 독일의 성인진입기 소설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 이 두 소설 장르를 별도의 장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의 하위 장르 개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1990년 이후의 독일의 신 팝 소설 모두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단히 많은 팝 소설이 동시에 성인진입기 소설이다. 우선 팝 소설의 작가, 작품 속의 주인공, 그리고 핵심 독자층 모두가 젊은이이다. 20세 전후의 독일의 팝 문인들은 그들의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고독, 소외, 사랑의 상실 내지는 파트너와의 결별, 성애, [...] 폭력, 팝음악과 [...] 약물중독”⁴⁷⁾ 등과 같은 젊은이에게 호소하는 주제를 통해 젊은 독자의 관심을 끄

44) Carsten Gansel 2008, S. 375ff.

45) Nicole Gast 2007, S. 39. 팝 소설의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논문 참고. 허영재 2011, 254쪽 각주 참조.

46) Vgl. Carsten Gansel 2008, S. 369. “일인칭 인물 시점”, 체형화법,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 등이 현대 성인진입기 소설의 서술 특징으로 간주된다.

는데 성공하였다. 독일의 젊은 독자들은 무엇보다 이들 작품의 기저에 깔려있는 팝 문화적 요소에 호응하였다. 팝송의 빈번한 인용과 이를 통한 감정표현, 구어체 문장, 진부해 보이는 젊은이의 일상 체험 이야기, 비속어의 남발, 현대 자본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상품명의 거리낌 없는 노출 등은 이들의 작품의 기저에 깔려 있는 대표적 팝 문화적 특성이다. 이러한 팝 문화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본다면 팝 문학 속의 대중 문화적 요소는 팝문학과 청소년문학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었다. 독일의 신 팝 문학은 대부분 젊은 작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텍스트의 주인공 역시 청소년, 특히 성인진입기에 속한 젊은 남성들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세기 말과 금세기 초에 나타난 팝 문학은 많은 경우 동시에 성인진입기 문학으로 분류된다. 실제 독일의 신 팝 문학 발생 초기에 아동청소년문학 연구는 90년대 독일의 신 팝 문학을 ‘포스트모던 사회의 청소년문학’ (이 논문에서 논구한대로 하자면 성인진입기 문학)으로 보았다. 이 시기의 “Adoleszenztext들은 새로운 라벨을 달고 출판되었는데 말하자면 팝 문학 또는 팝 소설 이란 상표를 붙였다”라고 이야기 되었다.⁴⁸⁾ 여기서 Adoleszenztext는 결국 ‘성인진입기 청소년’을 다룬 텍스트’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90년대 팝 문학은 포스트모던 사회의 성인진입기 소설과 동일한 구성과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두 장르 사이의 경계는 대단히 모호하다. 다만 앞선 지적처럼 성인진입기 소설 개념은 1980년 이후 독일의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어, 이후 십 수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성인되기’를 주제로 하는 현대 청소년 소설의 하위 장르라 할 것이다.

현대 또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인진입기 소설의 주인공은 전형적인 사건 설정 속의 유형화된 인물이 아니라,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들은 현대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 존재론적 고통 또는 인간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들 고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성인진입기 소설은 작품 속에서 문제 제기만 할뿐, 그 문제는 미해결로

47) Thomas Jung 2002, S. 41.

48) Carsten Gansel 2008, S. 370.

남는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청년의 좌절이 주제가 된다는 점에서) 90년대 팝 소설과 대단히 유사하다. 또한 두 소설 형식이 공통적으로 즐겨 다루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의 자기 정체성 추구, 사랑, 성애 등이다.

90년대 독일 신 팝 문학의 효시인 『파저란트』 역시 20대로 추정되는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으로 포스트모던의 성인진입기 소설의 특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에 대한 “시대 진단적 특성”과 “현대의 자유로운 표면 이면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작품은, 최근의 포스트모던 성인진입기 소설이 그러하듯이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외부 시각이나 또는 교육적 메타 담론”⁴⁹⁾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대신 “정체성 확립, 자율성, 개성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깨어버리는”⁵⁰⁾ 특성을 드러낸다. 여느 교양소설처럼 이 작품 역시 여행소설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주인공의 여행은 일종의 수업여행의 성격을 띤 교양소설의 여행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교양소설의 주인공의 여행은 ‘삶으로 들어와서 우정을 만나고 애정을 체험하면서 상호 연관된 영혼’을 찾아 나선 여행이다. 그리고 “세계의 냉혹한 현실과 투쟁하면서 다양한 삶의 체험을 이해하고 자신을 발견하며 세계에서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신”⁵¹⁾하게 된다. 그러나 『파저란트』의 주인공의 여행은 뚜렷한 목적도 예정된 여정도 없다. 처음 언급된 목적지가 도중에 즉흥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여행은 주인공의 실제 체험이 아니라 상상 속의 일로 의심을 받는다.⁵²⁾ 그의 여정 대부분은 대도시의 술집, 카페, 파티로만 이어지면서, 동시에 음주와 흡연, 마약복용, 동성애를 포함한 성애 장면들이 작품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처럼 시민적 노동이나 일상적 삶의

49) Vgl. Annette Wagner, S. 49.

50) Ebenda.

51) 오한진 12쪽.

52) 현재 시제 문장으로 시종일관하는 소설의 문장과 일인칭화자의 유아론적 태도로 인해 독자들은 오로지 주인공인 ‘나.화자’의 체험과 그의 의식에 투영된 것만을 보고 받는다. 더욱이 작중 인물의 대화조차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작중 화자의 의식을 떠나서는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으며 소설 속의 모든 세계는 오로지 화자의 의식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이로 인해 주인공의 보고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특히 그의 여행은 실제 그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상상 속 일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모습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과저란트』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브렛 이스턴 엘리스의 『아메리칸 사이코』⁵³⁾의 세계처럼 주인공의 생계와 관련된 노동의 세계는 전혀 묘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옹 Thomas Jung은 90년대 당시 독일의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의 특징으로 “고독과 소외, 사랑의 상실, 파트너와 결별, 성애, [...] 음악소비와 [...] (술, 담배와 같은 가벼운 환각제에서부터 심각한 마약에 이르기까지) 마약 소비”⁵⁴⁾ 등의 반복된 서술을 지적한다. 또 다른 대표적 팝 문인인 슈툽크라트-바레의 『솔로앨범』에서도 옹의 주장은 마치 하나의 도식처럼 확인이 된다. 이 작품 역시 전형적인 팝 소설이자 성인진입기 소설이다. 20대 초반의 나이로 추정되는 주인공 ‘나’는 막 스무 살이 된 애인과 헤어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버림받고) 이로 인해 괴로워한다. ‘대학이란 곳에 입학한 적은 있지만 한 학기 만에 포기하고’ 말아 버린 나는 지금은 음악관련 출판사에서 일을 한다. 하지만 그가 일하는 출판사도 “직원들이 한 달에 한 주 정도만 일다운 일을 하는”(Soloalbum S.20.) 그런 직장이다. 주인공은 떠나간 애인을 생각하며 파티장과 술집을 드나들고 술과 마약, 여성들과 섹스로 이별의 고통을 잊으려 한다. 작품 전반에는 90년대 영국 최고의 밴드인 오아시스의 음악을 필두로 팝음악이 마치 영화의 배경처럼 소설 줄거리를 대변한다. 이러한 신세대 작가들은 “자신의 자서전적 경험에서 나온 에피소드를 서술의 대상으로 삼고, 이것을 노래 인용, 소비세계와 상품세계의 상표 나열과 정교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생활감정, 팝-라이프스타일을 만들고 있다.”⁵⁵⁾ 이러한 젊은 주인공의 라이프스타일은 자유분방을 넘어서 상습적인 폭음과 흡연은 물론 동성애와 마약 복용에 이르기까지 통상적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옹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기준이 상실”된 사회 환경이 이와 같은 팝 문학 주인공들의 일탈의 원인으로 보고 있

53) 80년대 술과 마약 그리고 파티, 섹스로 전전하는 젊은 여파족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메리칸 사이코』 작품 전체 줄거리를 형성한다. 이와 흡사한 줄거리를 가진 『과저란트』는 때로는 이 작품의 표절이라는 주장이 있었을 정도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논문 참조: 허영재, 2011.

54) Thomas Jung, S. 41.

55) Ebenda.

다. 포스트모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전개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인간은 불가피하게 “개인, 즉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이자 동시에 일회적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개인성에 대한 강요는 사회질서의 급변과 경제적 역동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체의 위기와 고독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⁵⁶⁾ 이러한 주체의 위기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대체물을 찾게 되는데, 이것이 팝 문학에서 섹스, 마약, 팝 음악, 미디어 소비, 파티에 대한 탐닉으로 나타난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빌헬름이 ‘탐의 결사’에 가입을 허락받는 수업기를 받으면서 주변 세계와의 화해와 사회로의 편입이 가능해지는 것과 달리, 포스트모던 성인진입기 소설에서는 그와 같은 궁극의 화해를 찾지 못한다는 점이 다르다. 『파저란트』에서 음주, 흡연, 섹스와 마약 등 방종한 일탈로 이어지던 ‘나’의 여정은 스위스에서 토마스 만의 무덤을 찾고 취리히 호수에서 보트를 타는 것으로 끝난다. “우리는 곧 호수 한 가운데에 당도할 것이다”(Faserland, S. 158)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많은 연구자들의 지적처럼 주인공의 죽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토마스 만의 묘지일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예술을 통한, 즉 글쓰기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을 답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⁵⁷⁾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기에 작품에서 드러난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오히려 그가 의도하는 달리 어둠 속에서 토마스 만의 묘를 찾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개가 그의 묘소에 배설을 하였을 거라는 상상은 문학을 통해 구원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태도에 대한 부정으로 볼 수 있다.⁵⁸⁾ 후기산업사회에서 한 젊은이의 자아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계속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성인진입의 지속적 유예 또는 성인되기의 거부하는 모든 진지함을 배격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팝 문화적 특징과 더불어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56) Thomas Jung, S. 45f.

57) 크리스티안 크라흐트: 『파저란트』, 김진혜, 김태한 역. 역자후기: 김태한, 「바버 재킷을 입은 작가 또는 명품 시대의 문학」, 249-50쪽.

58) 위의 책 253.

III. 결 론

본 논문에서 살펴본 ‘Adoleszenzroman’은 청소년 주인공을 줄거리의 중심에 두면서 무엇보다 성인진입을 앞 둔 청소년의 핵심 문제인 ‘정체성 발견’을 근본적 주제로 삼는 텍스트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유년의 순진무구와 작별하고 성인세계로 들어가는 단계의 청소년을 다루는 소설 장르이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이 하위 장르에서 일어난 변화는 ‘Adoleszenzroman’을 그냥 전통적인 ‘청소년 소설’로 분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 장르에 속한 텍스트 가운데 포스트모던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전통적인 청소년 문학의 모범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현대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인으로의 진입이 지연되거나 유예된 결과 때문이다. 이처럼 성인진입의 유예로 (달리 표현한다면 청소년 후기가 연장되었다 할 수 있는데) 인한 과도기는 연령상으로 보면 30대와 40대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이 새로운 장르를 청소년소설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소설 장르는 현대 Adoleszenz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성인진입기 소설’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성인진입기 소설은 무엇보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실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급진적 개인성 개념이 새로운 장르를 전통적인 청소년 문학과 구별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포스트모던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실존적 동요와 심각한 정체성위기 속에서 지금도 사회와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인되기를 유보한 채 『과저란트』의 주인공처럼 길 위에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1차 문헌

- 엘리스, 브렛 이스턴: 『아메리칸 사이코(상, 하)』. 이옥진 옮김, 서울 2009.
- Kracht, Christian: 『Faserland』. 7., Aufl. München 2007.
- 크리스티안 크라흐트: 『파저란트』. 김진혜·김태환 역, 서울 2012.
- Regener, Sven: 『Herr Lehmann』. 23., Aufl. München 2003.
- 스벤 레게너: 『레만 씨 이야기』. 김현진 옮김, 서울 2002.
- Stuckrad-Barre, Benjamin von: 『Soloalbum』. 4., Aufl. Köln 2006.
- 벤야민 폰 슈투크라트 바레: 『클럽 오아시스』. 송소민 역, 서울 2008.

2차 문헌

- 오한진: 독일교양소설 연구. 서울 1989.
- 허영재: 「문학적 모범 또는 표절? 파저란트와 아메리칸 사이코의 비교 분석」, 『코기토』 제70집, 2011, 249-274.
- 허영재: 「레만 씨 이야기 연구」. 성인진입기 소설 개념을 중심으로 『괴테연구』 제26집, 2013, 283-314.
- Arnold, Heinz-Ludwig(Hrsg.): 『Pop-Literatur』. Sonderband. Text und Kritik. München 2003.
- Baßler, Moritz: Der deutsche Pop-Roman. Die Neuen Archivisten. München 2002.
- Bergmann, Ina: And Then the Child Becomes a Women. Weibliche Initiation in der amerikanischen Kurzgeschichte 1865-1970. Heidelberg 2003.
- Born, Stefan: Sven Regeners “Herr Lehmann” als Adoleszenzroman. In: Zwischenzeit, Grenzüberschreitung, Aufstörung. Bilder von Adoleszenz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Hrsg. von Carsten Gansel/Pawel Zimniak. Heidelberg 2011. S. 529-558.
- Degler, Frank/Paulokat, Ute: Neue Deutsche Popliteratur. Paderborn 2008. S. 43-52.
- Firaza, Joanna: Grenzgänertum eines (Post)Adoleszenz in Sven Regeners

- “Herr Lehmann”(2001) und “Der Kleine Bruder”(2008). In: Zwischenzeit, Grenzüberschreitung, Aufstörung. Bilder von Adoleszenz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Hrsg. von Carsten Gansel/Pawel Zimniak. Heidelberg 2011. S. 559-576.
- Freese, Peter: The American Short Story. Paderborn 1986.
- Ders.: Die Initiationsreise. Studien zum jugendlichen Helden im modernen amerikanischen Roman. Tübingen 1998.
- Gansel, Carsten: Adoleszenz, Ritual und Inszenierung in der Pop-Literatur. In: Pop-Literatur. Text & Kritik. München 2003.
- Ders.: Adoleszenz und Adoleszenzroman als Gegenstand literaturwissenschaftlicher Forschung - Forschungsbericht.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2004. H. 1, S. 130-149.
- Ders.: Der Adoleszenzroman. In: Geschichte der deutschen Kinder- und Jugendliteratur. Hrsg. von Reiner Wild. 3., Aufl. Stuttgart/Weimar 2008. S. 359-379.
- Ders.: Moderne Kinder- und Jugendliteratur. Vorschläge für einen kompetenzorientierten Unterricht. 4., überarbeitete Aufl., Berlin 2010.
- Ders.: Zwischenzeit, Grenzüberschreitung, Störung - Adoleszenz und Literatur. In: Zwischenzeit, Grenzüberschreitung, Aufstörung. Bilder von Adoleszenz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Hrsg. von Carsten Gansel/Pawel Zimniak. Heidelberg 2011. S. 15-48.
- Gansel, Carsten/Zimniak, Pawel(Hrsg.): Adoleszenz und adoleszenzroman in der Literatur - Vorbemerkung. In: Zwischenzeit, Grenzüberschreitung, Aufstörung. Bilder von Adoleszenz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Hrsg. von Carsten Gansel/Pawel Zimniak. Heidelberg 2011. S. 8-11.
- Gast, Nicole: Die Initiationsthematik im deutschsprachigen Pop-Roman der Jahrtausendwende. Norderstedt 2007.
- Heller, Aron: Odyssee zum Selbst. Zur Gestaltung jugendlicher Identitätssuche im neueren amerikanischen Roman. Innsbruck 1973.
- Hielscher, Martin: Geschichte und Kritik. Die neue Lesbarkeit und ihre

- Notwendigkeit. In: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31, 2001. H. 124. S. 65-71.
- Hurrelmann, Klaus(Hrsg.): Lebensphase Jugend: Eine Einführung in die sozialwissenschaftliche Jugendforschung. 6., Aufl. Weinheim/München 1999.
- Jung, Thomas: Von Pop international zu Tristesse Royale. Die Popliteratur zwischen Kommerz und postmoderner Beliebbarkeit. In: Alles nur Pop? Anmerkungen zur populären und Pop-Literatur seit 1900, hrsg. von Th. Jung. Frankfurt a. M. 2002.
- King, Vera: Die Entstehung des Neuen in der Adoleszenz. Opladen 2002.
- Köhn, Lothar: Entwicklungs- und Bildungsroman. Ein Forschungsbericht. Stuttgart 1969.
- Lurker, Manfred: Wörterbuch der Symbolik. Stuttgart 1991.
- Messmer, Susanne: "Helden wie wir". In: "die tageszeitung". 11./12.8.2001.
- Reimann, Kerstin E. : Schreiben nach der Wende - Wende im Schreiben? Literarische Reflexionen nach 1989/90. Würzburg 2008.
- Remschmidt, Helmut: Adoleszenz. Entwicklung und Entwicklungskrisen im Jugendalter. Stuttgart/New York 1992.
- Text und Kritik: Pop-Literatur. 2003.
- Wagner, Annette: Postmoderne im Adoleszenzroman der Gegenwart. Studien zu Bret Easton Ellis, Douglas Coupland, Benjamin von Stuckrad-Barre und Alexa Hennig von Lange. F/M 2007.
- Wild, Reiner(Hrsg.): Geschichte der deutschen Kinder- und Jugendliteratur. 3., Aufl. Stuttgart/Weimar 2008.

Zusammenfassung

Ein Versuch zur Begriffsbestimmung des deutschen Adoleszenzromans

Her, Yeongzae (Pusan National Uni)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en Gattungsbegriff des Adoleszenzromans zu bestimmen. Der Adoleszenzroman ist ein relativ junger Gattungsbegriff, mit dem sich die deutsche Literaturwissenschaft erst seit den 1980er Jahren befasst. In den 1990er Jahren erfährt er zunehmende Popularität auf dem Buchmarkt und in der Forschung. Zur Begriffsbestimmung dieser neuen Gattungsform erfolgt zunächst eine Auseinandersetzung mit dem Begriff Adoleszenz, weil es sich bei dieser Gattung primär um eine Typenbildung auf der Grundlage von Stoff- bzw. inhaltsbezogenen Merkmalen handelt und der hierbei zugrunde liegende Stoff, die Adoleszenz, soziokulturell und kulturgeschichtlich determiniert ist. Um die Grundstrukturen dieser Gattung noch näher zu bestimmen, wird versucht, diese neuere Romanform gegenüber historisch verwandten Gattungen, den Bildungs-, Entwicklungs-, Schelmen-, und Erziehungsromanen abzugrenzen. Dabei ist auch beabsichtigt, diese Gattung vom amerikanischen Initiationsroman und dem deutschen neuen Poproman zu unterscheiden.

주제어: 성인진입기, 성인진입기 소설, 교양소설, 성인입문소설,
청소년문학

Schlüsselbegriffe: Adoleszenz, Adoleszenzroman, Bildungsroman,
Initiationsroman, Jugendliteratur

필자 E-mail: yzher@pusan.ac.kr

논문투고일: 2014. 10. 24, 논문심사일: 2014. 11. 18, 게재확정일: 2014. 11. 26.